



>>> 삼성SDS 중국연구회

## 중국 고급인맥 구축 비즈니스 성과에 연계

삼성SDS 중국연구회는 지난 2003년 김인 삼성 SDS 사장의 학습조직 활성화 방침에 따라 회사의 중국사업지원 및 중국연구를 통해 중국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보통 기업내 동호회가 개인의 여가 활동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반면, 삼성SDS 중국연구회는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강한 셈이다. 물론, 활동에 따른 중국 인맥 확보와 중국어 실력 향상 등은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 연구회의 설명이다.

중국연구회는 삼성SDS 488명을 포함해 21개 삼성그룹 관계사에서도 참여, 총 643명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사의 중국사업 지원과 중국전문가 양성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활동방향도 중국 관련 정보 축적 및

제공을 비롯해 중국인맥 관리, 중국어·중국문화 등 중국연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 중국연구에 포커스

이에 따라 중국연구회는 중국 인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구축, 주한 중국인사 관리, 중국인사 초청 세미나, 중국어 토론회 및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회 조직은 오프라인 회원과 온라인 회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반도체 분회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수원, 강남, 강북, 분당 등 지역분회가 운영되고 있다.

오프라인 회원의 경우 지역전문가, 주재원 출신, 사내 중국인으로 구성돼 모임을 주도하고 회장단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연구회는 동호회가 생기던 해인 2003년 10

월 삼성그룹 인트라넷인 MySingle내에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MySingle 블로그니터를 통해 최신 중국 동향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 뉴스레터 발송,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Q&A도 운영하고 있다. 삼성그룹 인트라넷을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룹 계열사들의 직원들도 참여하게 됐다.

인맥 구축, 중국어 실력 증대라는 실질적인 효과에 다른 계열사 직원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회측의 설명이다.

특히, 연구회 활동을 통해 가장 뚜렷한 성과로 평가되는 것은 다양한 인맥정보 체계 구축이다. 연구회는 지역 전문가, 주재원, 중국인 직원들이 Biz4China 사이트를 통해 중국내 거주하는 인력들과 온라인 교류는 물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다양한 지역의 법률, 재무, IT전문가 등 여러 직종의 인맥정보를 구축했다.

### 삼성그룹 인트라넷에 커뮤니티 개설

이 인맥정보는 A, B, C급으로 나뉘어 삼성SDS가 추진하는 대중국 비즈니스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사업추진시 영향력이 큰 A급과 사업 추진시 활용이 가능한 B급 인맥, 향후 활용이 가능한 잠재인맥인 C급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확보된 인맥은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중국문화원과의 우호관계를 형성하며 향후 대 중국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분당 분회에 초급 중국어 과정을 비롯해 각 분회에 중급회화 3개 과정이 개설되며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도 톡톡히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중국어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비롯해 매달 중국어 토론회 개최 등 교육 차원의 오프라인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태극권 세미나, 중국 경제전망 및 투자세미나, 중국와인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 중국 영화제 참가, 중국 음식 체험행사 등을 통해 중국 경제와 문화 배우기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연구회는 이 같이 활발한 활동으로 삼성그룹 30대 우수 커뮤니티로 선정되는 것을 비롯해 삼성 SDS 우수 연구회 수상 및 신지식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구회의 내년 목표는 그동안 진행해온 것처럼 꾸준히 고급 인맥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그간 구축해온 인맥을 통해 가시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가는 것이다.

아울러 대사관 중심의 대외 활동도 언론, 기업인으로 확대하고 국내 중문과, 화교학교 등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학계 지원, 유학생 지원 활동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K**

